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박성재** · 반정호***

이 연구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시장 성과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여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취업준비노력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미친 효과를 보면 재학 중 일 경험과 취업준비 시기는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점수, 면접횟수는 오히려 이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취업효과는 학력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전문대 졸업자는 교육훈련과 재학 중 일 경험이, 대졸자는 학점, 현장실습, 외국어능력 등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효과에서도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문대 졸업자는 재학 중 직업훈련, 재학 중 일 경험, 영어능력이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다. 4년제 대학 대졸자는 졸업 후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학 중 일 경험은 오히려 임금수준을 낮추지만, 영어점수와 재학 중 취업준비는 임금보상이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취업준비노력, 이행기간, 취업효과, 임금수준

I. 머리말

경기침체 지속으로 청년층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2005년 3.7%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동 기간 청년층 실업률은 8.1%에서 8.0%로 낮아졌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들어 청년층 실업률이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체 실업자 807천명 중 청년층(338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41.9%에 이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6). 고시학원을 다니거나 직업훈련 혹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유휴인

*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과 논문의 개선방향을 지적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팀장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력)까지 포함하면 청년층 취업난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2003; 2006)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인구가 2003년 4월에는 106.7천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6년 4월에는 230.9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무엇이고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청년층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장원섭·김형만·육준필, 1999; 이병희, 2002; 이병희, 2003; OECD, 1998; Shavit and Müller, 1998; Stern and Wagner, 1999), 학교로부터 노동세계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이 무엇이고 학교·노동시장간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osenbaum, 1991; Maurice and Sorge, 2000).

정부의 청년층 실업대책과 무관하게 청년들 역시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중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05년 17.2%, 2006년 16.2%로 나타났고, 직장체험이 있는 사람은 2005년 44.0%, 2006년 41.3%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5, 2006). 인터넷 채용업체인 인쿠르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가운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44.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03). 청년패널을 분석한 김주섭·박성재(2003)의 연구를 보면 청년층 중 직업훈련 수강 경험자는 23.8%, 자격증 취득자는 49.9%로 나타났고, 김용현·이규용(2003)의 분석에서도 재학 중 직업훈련 경험자 37.6%, 자격증 취득자 55.9%에 이르고 있다¹⁾.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불분명하다. 자료의 제약으로 기존 연구들은 직업훈련, 자격증, 재학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국한되어 왔는데 그 평가가 명료하지 않은 실정이다(김우영, 2002; 김안국, 2003; 김주섭·박성재, 2003; 채창균, 2003; 이상은, 2005). 더구나 많은 청년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어공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업준비시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조사 자료에 따라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전체 청년층(재학·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고 김주섭·박성재(2003)는 청년층 중 최종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자료, 김용현·이규용(2003)은 대학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였는데 조사자료 간 표본의 인적 특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첫 직장 진입 이전에 어떤 유형의 취업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3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자료(이하 졸업자조사)》이다. 졸업자조사는 청년들의 취업준비시기 및 준비 유형(직업훈련, 자격증, 영어시험, 일 경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직업훈련, 자격증 획득 등 취업준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훈련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취업노력이 노동이동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은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본론에서 인적자본이란 사람들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 교육과 훈련의 양으로 개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의 정도가 많을수록 인간의 자본적 가치가 높아져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Becker, 1975). 미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 자신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직업훈련 및 자격증 열풍은 적극적 취업준비활동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할 경우 보다 좋은 일자리로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우영(2002)에 따르면 자격증, 직업훈련 및 아르바이트 경험 모두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직업훈련 시기를 통제하여 첫 직장 이전에 받는 직업훈련의 취업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강순희·박성재, 2002). 그러나 직업훈련 수강자의 최종학교 졸업시기와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결과가 상이하기도 하였다. 즉, 경제위기 이전 졸업자,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 20-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취업증진효과가 있었다(김미란, 2003; 이상은, 2005). 하지만 이 결과는 직업훈련시기가 통제되지 않아 기업에서 받은 직업훈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도 직업훈련이 훈련참가자의 경제적 지위상승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Perry, Anderson, Rowan and Northrup, 1976; Ashenfelter, 1978),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LaLonde, 1995; Leigh, 1995). 재직근로자와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실업자, 전직희망자, 청년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다(Couch, 1992; Bloom, Orr, Cave, Bell, Doolittle and Lin, 1994). 이러한 이유로 바씨(Bassi, 1983)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훈련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을 받은 당해 년도에는 취업확률을 높이지 못하지만 여성의 경우 교육을 종료한 2-3년 동안에는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김안국·강순희, 2002). 이는 직업훈련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격증은 취업확률을 높이지만(이동임·김덕기, 2001; 강순희·박성재, 2002; 김우영, 2002; 이병희 외, 2004), 자격증 취득자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자격증은 여성에게만 취업효과가 있으며, 취업효과도 자격증 취득년도가 아니라 이후 2-3년에 걸쳐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다(김안국·강순희, 2002). 전문대졸 이상자의 취업준비노력을 평가한 김용현·이규용(2003)의 연구 역시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취업준비노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는 자격증만이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자의 특성(성, 학력수준 등)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동임·김덕기(2001)의 연구에서는 자격증은 취업 뿐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준(2006) 역시 자격증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5.5%에서 9.9%에 이르렀다. 또한 자격증의 임금효과는 노동이동보다는 한 직장에 근속함으로써 얻는 것이 더 컸다.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고 이행기간을 단축시켰다(이병희, 2003). 일자리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취업준비확률이 높고, 그만큼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채창균, 2003). 그러나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김우영, 2002; 김준영·전용석, 2004)함을 볼 때, 일 경험 유형별로 취업에 미친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훈련 참여와 자격증 취득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적극적인 행위임에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훈련 투자와 생산성간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며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다. 사실 사회이동은 어느 한 측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개개인이 가진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실현되는 것은

노동수요 측면의 여러 구조적인 요인(노동시장 구조, 고용관행, 직업구조)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Kerckhoff, 1976; Baron and Bielby, 1980). 따라서 직업훈련과 자격증과 같은 취업준비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업구조, 산업구조, 기업조직, 노동조합, 국가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부터는 먼저 분석 자료를 이용해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 현황을 살펴본 후, 취업준비활동의 노동시장 성과를 이행효과, 취업효과, 임금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Ⅲ. 대졸자들의 취업준비노력

1. 분석자료 및 표본의 주요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졸업자조사》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이행패턴 및 교육시장과 노동시장간 상호작용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2002년 2월 국내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4,026명(4년제 대학 졸업생 7,543명, 전문대 졸업생 6,483명)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 및 노동이동을 추적 조사한 것이다. 이 글이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이동에 미친 성과를 살펴보는데 있으므로, 먼저 졸업 후 추가로 정규교육과정에 진학한 재학생과 개인의 인적사항 및 학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분석에 필요한 주요 변수가 빠진 사례를 제외하였다. 또한 첫 직장을 입사한 시점이 졸업 1년 이전인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로서 계속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본선정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 사용한 사례는 총 10,097명이다.

표본의 기초통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 10,097명 중 서울 및 수도권지역 졸업자가 4,737명(46.9%)이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5,360명(53.1%)이다. 성별로는 여성(52.8%)의 비율이 다소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 47.3%, 대학 52.7%이다. 전공계열 분포를 보면 이공·자연계열 비중이 47.1%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 32.4%, 교육·의학계열 12.3%, 기타 8.2% 순이다.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여부와 첫 직장 경험여부를 보면 취업자 8,210명(81.4%), 미취업자 1,887명(18.7%)이다. 취업자 중 현 직장이 첫 직장인 사람은 5,498명(54.5%)이고, 현재

는 미취업상태이지만 첫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06명(11.0%)이다. 반면 781명(7.7%)은 조사 시점까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표본의 92.3%인 9,316명이 조사 시점까지 첫 직장을 경험하였거나 첫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표 1>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별 첫 직장 경험유무 및 취업여부

(단위: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미취업자		전체
		첫 직장 아님	첫 직장임	직장경험있음	직장경험없음	
성	남	1,126 (23.6)	2,808 (58.9)	427 (9.0)	405 (8.5)	4,766 (47.2)
	여	1,586 (29.8)	2,690 (50.5)	679 (12.7)	376 (7.1)	5,331 (52.8)
학력	전문대	1,639 (34.3)	2,279 (47.7)	621 (13.0)	240 (5.0)	4,779 (47.3)
	대학	1,073 (20.2)	3,219 (60.5)	485 (9.1)	541 (10.2)	5,318 (52.7)
전공	인문사회	785 (24.0)	1,774 (54.3)	361 (11.0)	349 (10.7)	3,269 (32.4)
	자연공학	1,335 (28.1)	2,584 (54.3)	524 (11.0)	315 (6.6)	4,758 (47.1)
	교육의학	291 (23.5)	768 (62.0)	114 (9.2)	66 (5.3)	1,239 (12.3)
	기타	301 (36.2)	372 (44.8)	107 (12.9)	51 (6.1)	831 (8.2)
최종 학교 지역	서울	668 (22.6)	1,769 (60.0)	243 (8.2)	270 (9.2)	2,950 (29.2)
	수도권	582 (32.6)	898 (50.3)	219 (12.3)	88 (4.9)	1,787 (17.7)
	지방	1,462 (27.3)	2,831 (52.8)	644 (12.0)	423 (7.9)	5,360 (53.1)
전체		2,712 (26.9)	5,498 (54.5)	1,106 (11.0)	781 (7.7)	10,097 (100.0)

주: 최종학교 지역에서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도, 기타는 강원도와 제주도임.

첫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대부분의 대졸자(97.8%)들이 임금근로자로 일자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87.2%에 이르고 임시·일용직은 12.8%에 불과하다. 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대졸, 자연공학계열, 서울소재 대학 출신일수록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다. 사업장규모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취업한 자가 44.1%에 이르는 등 10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층이 64.4%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취업비중은 24.6%에 불과하다. 여자보다는 남자, 그리고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대졸자들이 취업한 사업장 규모가 더 크다.

<표 2> 표본 특성별 첫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및 사업장규모

(단위: 명, %)

		성		학교		전공계열				최종학교 지역			전체
		남	여	전문대	대학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타	서울	수도권	지방	
종사상지위	비일급 금로자	2.8	1.6	1.8	2.5	2.1	1.9	1.5	5.2	2.2	1.8	2.3	2.3
	상용 근로자	87.8	83.1	84.4	86.1	83.8	86.8	85.5	82.3	88.4	85.4	83.6	85.3
	임시일용 근로자	9.2	15.4	13.7	11.3	14.1	11.3	13.0	12.4	9.5	12.7	14.1	12.5
사업장규모	1-29인	36.3	50.9	52.1	36.5	40.2	42.2	45.1	67.3	37.5	49.4	45.8	44.1
	30-99인	20.5	20.2	18.9	21.7	19.6	20.1	26.1	15.8	18.3	20.7	21.4	20.3
	100-299인	12.4	9.8	10.5	11.5	11.7	12.0	8.9	6.0	12.2	9.8	10.8	11.0
	300인이상	30.7	19.1	18.5	30.3	28.4	25.6	19.9	10.9	32.0	20.1	22.0	24.6
전체		4,361	4,956	4,540	4,777	2,920	4,443	1,174	780	2,680	1,699	4,938	9,317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대규모 사업장 취업비중이 높다. 최종학교 출신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대간 격차가 매우 크다. 서울지역 졸업자의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취업한 자가 37.5%에 불과하지만 지방대 졸업자는 45.8%에 이르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비율을 보면 서울지역 졸업자는 32.1%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대 졸업자는 22.0%에 그치고 있다.

2. 대졸자들의 취업준비노력

전체 청년들의 취업준비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이 취업을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89.0%가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인적 특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최종학교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비해 수도권이나 지방 출신자들의 취업 준비율이 약간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준비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대졸자는 교육·의학계열과 기타계열 출신자들의 준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준비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느 시점부터 취업을 준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졸업년도와 졸업시점부터 취업을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일부 표본은 입학시점부터 취업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취업준비노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재학 중이거나 학교졸업 후에 영어학원, 직업기술학원 등의 교육

훈련에 참여한 비율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재학 중에 29.6%, 졸업 후에는 17.5%만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대졸자는 재학 중에 52.7%, 졸업 후에 22.7%가 여러 가지 유형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비율이 높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다른 계열전공자에 비해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전문대 졸업자는 서울지역 소재 대학졸업자의 참여율이 높지만, 대졸자의 경우에는 대학소재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다. 교육훈련학원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외국어학원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기술계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교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반면 대졸자는 어학교육 비중이 재학 중에는 73.1%, 졸업 후에는 60.1%에 이르고 있고, 기술계 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비중은 12%내외에 그치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취업난을 반영하듯 졸업 전에는 민간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비중이 전문대 5.6%, 대학 2.5%에 불과하였으나 졸업 후에는 각각 10.0%, 6.1%로 증가하고 있다.

자격증 관련사항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4,779명)의 68.7%인 3,284명이, 대졸자(5,318명)는 54.5%인 2,896명이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인적 특성별로 자격증 취득률을 비교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 서울지역 출신자보다는 지방대 출신자의 취득비율이 높다. 전공교육의 특성상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자연·공학계열 및 교육·의학계열 졸업자의 자격증 취득비율이 높다. 자격증 취득개수는 1명이 최대 15개까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취득개수는 전문대 졸업자 1.56개, 대졸자 1.03개이다.

인적 특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서울 소재 대학보다는 지방대 출신자일수록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는 1.43개에 불과하지만 지방 소재 대학졸업자는 평균 1.65개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한 자격증이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면 전문대는 70.6%에 이르지만, 대졸자는 52.9%에 그치고 있다. 교육의학과 이공자연계열 졸업자일수록 전공과 일치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은 일치하는 비율이 전문대 54.2%, 대졸자 40.0%에 불과하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소재지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일치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60%대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대는 48.2%에 불과하다.

재학 중 일 경험자가 평균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년들이

2) 졸업자조사에서는 자격증 취득개수와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 1개의 정보(자격명칭, 자격증 취득년월일, 자격종류, IT자격여부 및 전공과의 일치여부)만 제공하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이전에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경험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개인과의지도는 제외)을 경험한 비율이 전문대 졸업자 61.2%, 대졸자 7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장실습(전문대 졸업자 33.0%, 대졸자 10.2%), 정규직 취업 순이다. 창업을 경험한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적 특성별로 보면 현장실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공자연계열과 교육의학계열 졸업자의 참여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정규직 취업경험은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험률이 높지만 현장실습은 지방대 출신자의 참여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일 경험자에게 재학 중 일 경험이 취업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 정규직 취업경험과 현장실습이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국제화시대에 맞춰 외국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시 외국어능력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어능력은 외국어 시험 점수를 통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시험을 보고 있는데, 표본에서 외국어 시험 경험여부를 보면 학력별로 큰 차이가 있다. 전문대 졸업자는 외국어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12.9%에 불과하지만 대졸자는 58.0%에 이르고 있다.

외국어시험은 거의 대부분 영어시험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어(JPT)나 중국어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어시험에서도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토익(TOEIC)시험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대 졸업자는 토익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자가 8.4%인 반면, 대졸자는 45.5%(2,420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TOEFL이나 TEPS 시험 응시자는 2%에 불과하다. 대졸자들이 많이 응시하는 TOEIC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TOEIC 평균 점수는 699.3점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있어 학점은 매우 중요하다. 학점은 전공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 정도와 학창생활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시 학점을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점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다. 학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할 경우 자신의 환산학점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문대는 80.6점, 대졸자는 77.7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인적 특성별로 환산학점을 비교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학점이 높고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공학계열 전공자의 학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지방대 졸업자가 서울지역 대졸자에 비해 약 1.0% 포인트 가량 높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의 하나로 이력서 제출횟수와 최종면접횟수를

살펴보자. 이력서 제출 평균횟수는 전문대 4.6회, 대졸 10.0회로 나타나 대졸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 면접한 회사는 전문대 졸업자는 2.4회, 대졸자는 3.0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의 구직난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 특성별로 구분해보면 전문대의 경우 성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대졸자는 여자(7.0회)에 비해 남자(12.5회)의 이력서 제출횟수가 훨씬 많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공학계열 대졸자는 11.8회로 교육의학계열(2.4회)에 비해 무려 4배가량 높다. 출신지역별로는 지방대출신에 비해 서울지역 출신자의 제출횟수가 50%가량 많다. 반면 남성, 서울소재 대학출신, 인문사회계열과 이공자연계열 졸업자일수록 최종면접 횟수가 많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IV. 취업준비노력의 성과분석

1. 이행기간

이행기간은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월)으로 정의하고 취업준비노력 유형에 따라 이행기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단, 첫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하였고 졸업 전에 취업한 경우는 이행기간을 0개월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미취업 기간이란 정규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므로 조사시점까지 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한 우측절단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분석은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이 유용하다. 콕스모형은 우측절단된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위험 함수 $h(t)$ 는 어떤 사건(T)이 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사건이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다. 생존(survival) 즉, 미취업 상태로부터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는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여 승산비를 구할 수 있다.

<표 3> 취업준비노력의 취업해저드 효과(콕스비레위험모형)

	전문대졸		일반대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남성	0.060	0.041	0.142	0.047**
나이	0.004	0.009	0.036	0.013**
인문사회계열	0.024	0.061	0.286	0.056***
자연공학계열	0.017	0.058	0.118	0.057*
교육의학계열	0.068	0.066	0.132	0.069
서울소재대 출신	-0.037	0.040	0.030	0.033
수도권소재대 출신	0.074	0.035*	-0.173	0.054***
학점	0.006	0.002***	0.006	0.002***
취업전 교육훈련수강여부				
재학중 직훈받음	0.040	0.033	-0.013	0.030
졸업후 직훈받음	0.039	0.041	0.234	0.036***
재학중 일경험				
정규직 경험	-0.181	0.051***	-0.239	0.058***
시간제취업 경험	0.029	0.031	-0.065	0.033*
현장실습 경험	-0.102	0.032**	-0.045	0.048
창업 경험	0.188	0.225	-0.019	0.169
자격증 취득유무	0.034	0.033	0.050	0.031
토익 700점 이상취득	0.165	0.252	-0.061	0.039
이력서 제출횟수	-0.007	0.002***	-0.003	0.001***
최종면접 횟수	0.007	0.006	0.009	0.003**
취업준비 함				
취업준비시기-졸업후	-0.290	0.054***	-0.195	0.060***
취업준비시기-4학년	-0.037	0.219***	-0.509	0.053***
취업준비시기-4학년 이전	-0.474	0.053***	-0.442	0.061***
-2LL	70,428.5		75,634.3	
χ^2	175.2		315.1	
n	4,779		5,318	

주: 1) 종속변수는 최종 학교졸업 후 첫 직장입사까지 걸린 기간(월)임. 단, 취업 전에 첫 번째 일자리에 들어간 경우는 이행기간을 0개월로 함.
 2) * p<.05, ** p<.01, *** p<.001

콕스위험모형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를 첫 직장 이행기간으로 하고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전공, 출신대학 소재지, 교육훈련, 재학중 일경험, 자격증, 취업준비 시기 등을 설정하였다. 콕스모형을 이용하여 청년의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계수 값을 추정한 결과는 앞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지방대 출신자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들이 그리고 학점이 높을수록 미취업상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점이 높을수록 의중임금이 높을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 전에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재학 중 받는 직업훈

련과 졸업 후 받은 직업훈련 모두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 못했다.

재학 중 일경험에서 정규직과 현장실습 경험은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2003)의 지적처럼 일자리 체험을 통해 기업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고 이러한 자질을 쌓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취업확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자격증이나 영어 능력은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영어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12.9%에 불과하고 토익점수가 700점 이상인 표본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취업준비여부와 이력서 제출횟수는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다. 이력서 제출횟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실업탈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취업준비시기도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사례에 비해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대졸자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와 달리 여자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타·예체능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졸업자가 이행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첫 직장의 경우 남성의 의중임금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취업확률이 낮다. 인문사회계열의 이행기간이 긴 것은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인문화 영향으로 판단된다. 출신대학의 소재지는 전문대와 달리 수도권지역 대졸자는 지방대졸업자에 비해 첫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서울 소재 대졸자의 취업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학점이 높을수록 이행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재학중 직업훈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음의 계수인 반면 졸업 후에 받는 직업훈련은 오히려 이행기간이 길어져 직업훈련이 첫 일자리를 신속하게 획득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원인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재학중 일 경험, 취업준비 여부, 이력서 제출횟수는 모두 이행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종면접 횟수가 많을수록 노동시장 이행이 장기화되는 것은 취업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하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려는 노력이 미취업기간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은 학력수준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대체적으로 재학중 일경험과 취업준비 시기는 취업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능력, 면접횟수는 오히려 이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효과

취업효과를 평가할 때 취업여부와 함께 어떤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즉 ‘일자리 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졸업자조사에는 일자리의 질, 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 취업효과를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 취업여부로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소기업 분류기준이 300인이고 300인을 기준으로 기업의 보상수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사용할 경우 대기업에서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전공과 일경험 중 정규직과 시간제취업경험은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 경험이 청년층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대 졸업자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준비시기 역시 졸업학년에 취업을 준비한 경우 그 효과가 높았다. 졸업학년 이전에 취업을 준비할 경우 취업가능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대졸자를 보면 성, 연령, 전공과 같은 인적 속성 외에 대학소재지, 학점, 영어점수가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령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시 연령을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공 역시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육의학계열 졸업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취업하는 사업장규모가 업종 특성상 100인 미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출신지역은 서울지역 소재 대학 출신일 경우 안정적인 300인 이상 기업으로의 취업확률이 높다. 출신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첫 일자리의 사업체규모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류장수, 2005; 박성재, 2005). 학점은 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시 ‘학벌’ 다음으로 중시하는 지표이므로 학점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 취업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직업훈련은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추고 있다. 특히 졸업후 받는 직업훈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규모 사업장 취업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졸업후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취업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부의 효과를 미쳤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이병희, 2003; 채창균, 2003)는 재학중 일 경험이 취업확률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서도 현장실습 경험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준비노력의 대규모 사업장 취업효과(로지스틱 분석)

	전문대		대학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2.162	0.713**	-2.225	0.850**
남성(더미)	0.187	0.112	0.846	0.106***
만나이	-0.030	0.026	-0.065	0.029*
인문사회(더미)	1.192	0.210***	0.618	0.156***
자연공학(더미)	0.882	0.207***	0.782	0.157***
교육의학(더미)	1.189	0.220***	0.274	0.189
서울지역 출신(더미)	0.139	0.102	0.401	0.071***
수도권출신(더미)	0.025	0.091	0.091	0.126
학점	0.001	0.004	0.018	0.004***
취업전 교육훈련수강여부				
재학중 직훈받음	0.162	0.085	0.082	0.068
졸업후 직훈받음	-0.044	0.104	-0.334	0.084***
재학중 일 경험				
정규직 경험	0.352	0.124**	0.198	0.127
시간제취업 경험	0.170	0.081*	-0.072	0.073
현장실습 경험	0.116	0.082	0.236	0.109*
창업 경험	-0.293	0.632	-0.126	0.372
자격증 취득유무	-0.081	0.084	0.038	0.069
토익 700점 이상취득	0.650	0.508	0.872	0.079***
이력서 제출횟수	-0.007	0.006	-0.002	0.002
최종면접 횟수	-0.002	0.016	0.017	0.008*
취업준비 할				
취업준비시기-졸업 후	0.079	0.135	-0.083	0.130
취업준비시기-졸업년도	1.128	0.436**	0.105	0.112
취업준비시기-4학년 이전	0.115	0.130	0.055	0.130
-2LL	5,742.317		5,713.896	
n	4,779		5,318	

주: 1) 종속변수는 첫 사업장규모가 300인 이상 여부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경험은 대규모사업장 취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사업장규모를 통제하지 않고 첫 일자리 취업여부만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일 경험 유형에 따라 대기업의 평가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1> 참조). 역시 자격증은 대졸자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문대 졸업자와 달리 대졸자의 영어능력은 좋은 일자리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력서 제출횟수는 취업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최종면접횟수는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종면접횟수가 많다면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시기 역시 대졸자에게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볼 때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업이 중요시하는 학점이나 영어능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 경험도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유형의 직업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등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활동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은 취업준비활동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임금효과

임금효과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노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종속변수인 로그(log) 월평균 임금은 2003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사업장 특성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분석에서는 취업준비노력과 임금수준간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어 사업장 특성 변수는 통제하지 않았다.

전문대 졸업자부터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전공은 예체능·기타 계열에 비해 나머지 계열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대학 소재지역 효과는 지방대 졸업자에 비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출신일 경우 임금수준이 높았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타 지역으로 노동이동하기 보다는 출신대학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성재, 2005). 학점과 TOEIC 점수가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이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재학중 일 경험은 전체적으로는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취업준비노력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재학 중 직업훈련을 받거나 정규직이나 시간제로 취업한 경험이 있을 경우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서 제출횟수는 오히려 임금수준과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앞의 취업효과에서 확인한 것 처럼 취업을 위해 많은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떨어지는 일자리로 진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대 졸업자의 임금효과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와 동일하게 성, 연령, 전공 및 출신대학 소재지, 학점 모두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훈련은 첫 직장 임금수준과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 후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받는 직업훈련일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재학중 일 경험도 임금수준을 높이지 못했는데 시간제 취업경험이나 창업경험을 통해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기

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런 유형의 취업경험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의점수는 역시 임금수준과 정(+)의 관계이지만, 이력서 제출횟수는 임금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전문대 졸업자와 달리 면접횟수는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횟수가 많다면 그만큼 취업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만큼 좋은 일자리 취업확률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졸업이전에 취업준비활동을 시작한 경우 임금보상이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표 5> 취업준비노력의 첫 일자리 임금효과

	전문대졸		일반대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상수	3.680		3.635	
남성	0.177	0.254***	0.153	0.215***
나이	0.030	0.177***	0.032	0.150***
인문사회계열	0.122	0.158***	0.103	0.140***
자연공학계열	0.076	0.113***	0.119	0.166***
교육의학계열	0.166	0.174***	0.278	0.241***
서울소재대 출신	0.128	0.152***	0.113	0.153***
수도권소재대 출신	0.052	0.069***	0.037	0.029*
학점	0.001	0.032*	0.004	0.084***
취업전 교육훈련수강				
재학중 직훈반응	0.030	0.041**	0.001	0.001
졸업후 직훈반응	-0.016	-0.018	-0.031	-0.036**
재학중 일경험				
정규직 경험	0.038	0.034*	0.023	0.016
시간제취업 경험	0.019	0.028*	-0.050	-0.062***
현장실습 경험	-0.013	-0.018	0.002	0.002
창업 경험	-0.005	-0.001	0.123	0.030*
자격증 취득유무	-0.010	-0.014	-0.018	-0.026
토의 700점 이상취득	0.168	0.030*	0.149	0.167***
이력서 제출횟수	-0.001	-0.038*	-0.001	-0.043**
최종면접 횟수	-0.002	-0.021	0.003	0.037*
취업준비 함				
취업준비시기-졸업후	-0.029	-0.042	-0.008	-0.009
취업준비시기-4학년	0.043	0.009	0.039	0.055*
취업준비시기-4학년이전	0.018	0.026	0.053	0.057**
R ²	0.187		0.245	
n	4,540		4,777	

주: 1) 종속변수는 첫 직장의 로그임금임.

2)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의 다양한 취업준비노력 실태를 밝히고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는데 있었다. 분석결과, 90%에 가까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였고, 취업준비시기는 대부분 졸업을 앞둔 해와 졸업시점이었다. 청년들의 취업준비활동은 교육훈련참가(외국어학원 포함), 자격증 취득, 외국어시험 응시, 재학 중 일 경험 등 다양했으며, 취업준비 유형은 학력, 전공별로 상이하였다.

교육훈련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는 외국어학원 외에 기술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비중이 높지만 대졸자는 외국어학원을 다닌 비중이 높았다. 자격증은 전문대 졸업자들의 자격증 취득비율이 높고 교육체계의 영향으로 이공자연계열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은 교육의학계열, 인문사회계열은 민간(공인)자격을 취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취득한 자격증 전공일치여부를 보면 대졸자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들에게서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공자연계열과 교육의학계열에서 일치률이 높았다. 일 경험여부를 보면 전문대와 대졸자 모두 시간제 취업경험이 많은데, 전문대 졸업자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어시험 응시여부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 중 외국어시험을 응시한 자는 12.9%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졸자는 58.0%에 이르러 외국어 시험 응시 여부는 학력별 격차가 큰 편이다. 외국어 시험은 거의 영어시험에 집중되고 있는데 TOEIC시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행효과, 취업효과, 임금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줄여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력수준에 따라 취업준비노력의 효과가 상이하였다. 대체적으로 재학중 일경험과 취업준비시기는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능력, 면접횟수는 이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학점이나 영어능력이 뛰어난 경우 보다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장기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전문대 졸업자에게서는 개인의 인적 속성은 이행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졸자에게서는 성, 연령, 전공 등이 첫 일자리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준비노력이 좋은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취업준비노력 중 재학 중 교육훈련 참여와 정규직과 시간제취업경험만이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다. 기존연구와 달리 자

격증취득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외국어 능력(TOEIC 700점 이상) 또한 취업가능성을 높이지 못했다. 기업이 영어능력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응시한 비율이 낮고 중상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졸자는 이행효과에서와 같이 성, 연령, 전공 등 인적 속성 외에 학점, 현장실습경험, 외국어 능력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과 자격증은 전문대 졸업자와 동일하게 취업확률에 영향이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취업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처럼 학력별로 취업준비노력에 대한 노동시장 성과가 상이한 것은 전문대와 대졸자간 상이한 채용관행이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효과를 보면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자 모두 인적 특성변수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훈련은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재학 중 직업훈련은 임금수준을 높이지만, 졸업 후에 받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졸업 후에 훈련을 받기보다는 애초에 취업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재학중 일 경험은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정(+)의 관계이지만 대졸자는 부(-)의 관계이다. 이력서 제출횟수가 많을수록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낮았고, 면접횟수는 대졸자에게만 임금효과를 높이고 있다. 취업준비시기도 대졸자의 경우 졸업전에 취업준비를 시작한 경우 일자리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통해 임금보상이 더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여러 노력들이 대체적으로 취업에 유의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일한 취업준비 활동임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많은 청년들이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취업확률을 높이지 못하였다. 반면 재학 중 일 경험에서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정규직과 시간제취업경험이 대졸자에게는 현장실습경험이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준비도 실무경험을 쌓거나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때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력 및 전공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희·박성재 (2002)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의 일치”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139-168.
- 김미란 (2003)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첫 직장 이행기간에 대한 학력과 전공 계열의 영향” 《직업과 인력개발》 6(6): 66-72.
- 김안국 (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26(1):23-52.
- 김안국·강순희 (2002)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27(1):1-25.
- 김우영 (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83-107.
- 김주섭·박성재 (2003)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직업교육훈련의 효과”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3-30.
- 김준영·전용석 (2004)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고용정보원.
- 류장수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김주섭·안주엽·정진호·남기곤·류장수·장수명·최강식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41-178.
- 박성재 (2005)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5(4):65-99.
- 김용현·이규용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69-94.
- 이동임·김덕기 (2001)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 (2002) “청년층의 직업세계 정착과정과 경력형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34-51.
- 이병희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김주섭·박성재·류장수 (2004) 《자격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은 (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

- 지정책》 23:5-28.
- 이상준 (2006)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29(2):145-169.
- 장원섭·김형만·옥준필 (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2003) “대학생의 재학중 일자리 체험과 취업준비” 《직업교육연구》 22(1):169-184.
- 통계청 (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2003. 4).
-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보도자료(2005. 7).
- 통계청 (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보도자료(2006. 7).
- 한국경제신문 2003. 4. 12.
- 한국노동연구원 (2006) 《월간 노동리뷰》 22.
- Ashenfelter, Orley (1978) “Estimating the Effect of Training Programs on Earning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3:47-57.
- Baron, James. N. and William. T. Bielby (1980) “Bring the Firms Back in: Stratification, Segment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737-765.
- Bassi, Laurie. (1983) “The Effect of CETA on the Postprogram Earnings of Participa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8:539-556.
- Becker, Garry S. (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oom, Howard S., Larry L. Orr, George Cave, Stephen H. Bell, Fred Doolittle, and Winston Lin. (1994) *The National JTPA Study Overview: Impacts, Benefits, and Costs of Title II-A Abt Associates.*
- Couch, Kenneth. A. (1992) “New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380-388.
- Kerckhoff, Alan. (1976) “The Status Attainment Process: Socialization or Allocation?” *Social Forces* 55(2):368-381.
- Lalonde, Robert. (1995) “The Promise of Public Sector-Sponsored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2):149-168.

- Leigh, Duane. (1995) *Assisting Workers Displaced by Structural Chang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Maurice, Marc and Arndt Sorge. (2000) *Embedding Organizations: Societal Analysis of Actors, Organizations and Socio-Economic Contex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OECD. (1998) *Thematic Review of The Transition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Background Reports and Country Notes*.
- Perry, Charles, Bernard Anderson, Richard Rowan and Herbert Northrup. (1976) *The Impact of Government Manpower Programs*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Rosenbaum, James E. (1991) "Do School Achievement Affect the Early Jobs of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ciology of Education* 64:78-95.
- Shavit, Yossi and Walter Müller. (1998) *From School to Work* Clarendon Press.
- Stern, David and Daniel A. Wagner. (1999) "Introduction: School-to-Work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s Responses to Push and Pull" 1-22 i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Hampton Press.

<부표 1> 취업준비노력의 사업장 취업효과(로지스틱 분석)

	전문대		대학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2.846	0.945***	2.261	1.066**
남성	0.042	0.161	-0.051	0.135
연령	-0.137	0.035***	-0.094	0.037**
인문사회계열	-0.112	0.238	-0.272	0.160*
자연공학계열	0.088	0.232	0.272	0.167
교육의학계열	0.707	0.302**	0.239	0.210
서울소재대 출신	0.149	0.159	0.080	0.097
수도권소재대 출신	0.154	0.143	0.540	0.193***
학점	0.019	0.006***	0.008	0.005
취업전 교육훈련수강여부				
재학중 직훈받음	-0.082	0.136	0.111	0.093
졸업후 직훈받음	-0.046	0.160	-0.683	0.100***
재학중 일경험				
정규직 경험	0.969	0.262***	0.614	0.229***
시간제취업 경험	-0.100	0.126	0.269	0.094***
현장실습 경험	0.224	0.137	0.338	0.167**
창업 경험	-1.611	0.554***	-0.462	0.431
자격증 취득유무	-0.029	0.195	0.046	0.138
자격증 개수	0.045	0.051	0.027	0.050
자격증 전공과 일치	0.149	0.163	0.424	0.131***
토익 700점 이상 취득	-0.651	0.788	0.181	0.126
이력서 제출 횟수	-0.011	0.005**	-0.008	0.003***
최종 면접 횟수	0.145	0.037***	0.139	0.022***
취업준비 할				
취업준비 시기-졸업 후	1.268	0.159***	0.661	0.133***
취업준비 시기-졸업년도	0.378	0.571	1.362	0.122***
취업준비 시기-4학년 이전	1.556	0.160***	1.213	0.152***
-2LL	2,126.437		3,576.466	
n	4,779		5,318	

주: 1) 종속변수는 첫 일자리 취업여부임.

2) * $p < .05$, ** $p < .01$, *** $p < .001$

Effects of Pre-Employment Efforts of the College Graduate Youth in Korea

Sung-Jae Park · Jung-Ho Ba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e-employment efforts of the youth on their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Labor market performance is assessed by the transitory period, the employment at workplace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and the wage level. Based on the effects of employment efforts for the first transitory period, job experience during school and preparatory period for employment would raise the likelihood of employment, but the school credit, grade in English, and the frequency of interviews, on the contrary, failed to reduce the transitory period. Employment effect varied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In case of college graduates,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experience during schoo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leading them to decent job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university graduates, job experience and language skills were proven to be important factors. Lastly, for the wage effect, in case of college graduates, vocational training, job experience during school, and English ability were proven to increase the wage level. However, vocational training after graduation and job experience during school decreased the wage level, but grade in English and pre-employment efforts during school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getting a decent, highly paid job for university graduates.

Key Words: pre-employment efforts, transitory period, employment effect, wage level